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구강관리 및 노인구강위생관리에 따른 구강보건지식 수준

김경민 · 박영남¹ · 이민경² · 이정화² · 윤현서² · 진혜정² · 김혜진²

부산대학교병원 치과 · ¹김천대학교 치위생학과 · ²동의대학교 치위생학과

Oral health knowledge level on oral care and elder oral hygiene care of the nursing home staff in long-term care facilities

Kyung-Min Kim · Young-Nam Park¹ · Min-Kyung Lee² · Jung-Hwa Lee² · Hyun-seo Yoon² · Hye-Jung Jin² · Hye-Jin Kim²

Pusa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 ¹Department of Dental Hygiene, Gimcheon University · ²Department of Dental Hygiene, Dong-eui University

Received : 17 July, 2014
Revised : 2 October, 2014
Accepted : 7 October, 2014

Corresponding Author

Hye-Jin Kim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Dong-eui University, Gaya 3-dong
Busanjin-gu, Busan, 614-714, Korea.
Tel : +82-51-890-4237
Fax : +82-51-890-2623
E-mail : khj1126@deu.ac.kr

ABSTRACT

Objectives :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geriatric care workers' oral care, and the oral care conditions of residents of elder care facilities in relation to workers' knowledge of oral care.

Methods : A survey was conducted from November 2011 to February 2012 with geriatric-care workers in elder care facilities located in Busan and other areas of Gyeongsangnam-do.

Results : With regard to their oral self-care practices, 52.5% of the geriatric workers "brushed their teeth from top to bottom" and 58.1% brushed their teeth 3 times a day. Further, 52.0% did not use any oral care products, while 36.5% used Mouthrinse. The workers who brushed their teeth in their own ways or from top to bottom had significantly higher oral care knowledge scores than those who brushed from left to right ($p < .05$). Concerning oral hygiene care for residents, 72.6% of the geriatric workers recommended that elders visit dentists for oral care, 96.6% helped elders oral wash their teeth every day, and 54.7% used oral care products for the elders. The workers who did not recommend visits to dental clinics scored slightly higher than those who did ($p < .05$). Additionally, those who did not help elders oral wash their teeth scored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who did ($p < .05$). Except for oral wash to recuperated old man and recommendation of visiting the dentist, relation between oral care and knowledge about oral health and oral hygiene care is plus mutual relation.

Conclusions : To manage the accuracy and quality of oral care work performed by geriatric care workers in elder care facilities, enhancing standard training and education on oral care is necessary. Providing systematic, regular education on such knowledge and practices would also be essential.

Key Words : elderly oral hygiene care, geriatric care worker, oral care knowledge

색인 : 구강보건지식, 노인구강위생관리, 요양보호사

서론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05년 현재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9.1%로 2004년 8.7%에 비해 0.4% 증가하였고 1995년 5.9%에 비해서는 3.2% 증가하였다. 65세 이상 인구는 평균수명의 연장 및 출산율의 감소로 인해 2000년 7.2%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로 초(超)고령사회에 도달 하게 된다¹⁾. 고령사회에 따라 노인복지에 대한 비중이 전체 복지 비중에서 자연히 증가하게 되었다. 2007년 4월 2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었고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요양보호 시설이 2008년 1,832개소에서 2010년 3,852개소로 계속 증가²⁾되고 있는 추세이다. 요양보호시설이 단기간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전체 요양보호사의 수도 비례관계에 있지만, 요양보호사의 양적 증가에 치우쳐 있어 질적 증가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요양보호사의 교육은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공통교재 사용이 의무화 되어 있으나, 교육과정 중 구강간호에 대한 내용은 개인위생간호 전체 5시간 이론 중 극히 일부로 다루어지고 있다³⁾. 전신영역에 비해 구강 영역에 대하여 양질의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 수가 부족하여 노인들의 구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실정이다. 요양보호사를 위한 요양보호사 표준교재⁴⁾에 의하면 요양보호사의 업무 중 구강관리는 신체활동지원서비스의 한 부분에 속하며 구체적인 서비스 범위는 구강청결,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물양치), 틀니 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현행 요양보호사 교육 및 관리 체계는 양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었고, 구강보건에 대한 교육내용이 체계적이지 못하며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중 구강간호에 대한 내용은 개인위생 간호 전체 시간 중 극히 일부로 다루어지고 있다³⁾.

노인은 전반적인 신체기능이 감소되고 저작기관 역시 변화하여 타액의 분비가 줄어들어 식욕감퇴와 식사량이 감소할 뿐 아니라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 등의 구강질환도 더욱 악화되는 특성을 가진다. 노인들에게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구강건강문제⁵⁾로는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구강건조증이 있다. 이러한 구강건강문제는 치아의 상실과 발음과 심미성에 영향을 줌으로써 대인 관계 및 원활한 사회생활에 제한을 주게 된다. 이로 인해 노인들의 사회적 소외감과 고립감을 촉진시킬 수 있다. 2010년 국민건강실태조사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에서 상·하악 중 한쪽만이라도 무치악인 경우가 59.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선행연구⁶⁾에 의하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구강내에 잔존하여 기능하고 있는 치아의 수가 적으며, 의치가 없는 무치악 노인의 집단이 유치악 또는 의치가 있는 노인집단에 비해 저작능력과 대화능력이 떨어지며 사회적 관계에서 상대적 위축감과 스트레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과 요양보호사들이 병적인 구강상태를 정상적인 노화의 결과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 교육 및 인식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장기요양 보험 대상자의 대부분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이거나 만 65세 미만의 경우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⁷⁾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들이며 중증인 경우 여생을 침대에 누워 지내야만 하는 현실이므로 스스로 구강관리가 부족하다⁸⁾. 현실적으로 장기요양보험대상자가 가장 의지하고 자신의 신체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요양보호사들이며 가족을 제외하고 직접 돌봄 역할을 담당하고 대상자들의 구강건강관리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 요양보호사가 입소노인에게 제공하는 구강관리 실태나 구강관리 인식도에 관한 연구는 있으나 요양노인의 구강관리를 담당하며 그들의 구강보건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게 될 요양보호사의 구강관리, 구강보건지식의 정도와 요양노인의 구강위생관리 행태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조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요양노인을 대상으로 적절한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구강위생관리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소재한 노인요양시설(부산광역시 노인건강 센터, 요양보호시설 외 16개소)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200명을 대상으로 2011년 1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회수한 설문지 중 응답이 불충분하여 분석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는 21부를 제외한 179부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 구성은 권⁹⁾과 신¹⁰⁾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일반적 특성 5문항, 구강관리 7문항, 구강보건지식 8문항, 노인구강위생관리 9문항으로 구성되어 연구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구강보건지식은 총 8문항으로 정답을 1점, 오답을 0점으로 하여 최저 0점에서 최고 8점까지 점수가 높을수록 구강보건지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Table 1. Knowledge about oral health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geriatric care helpers

Category	N(%)	Knowledge about oral health			
		Mean±SD ¹⁾	t/F	p-value	
Sex	Male	11(6.1)	2.45±1.03	-2.013	.046*
	Female	168(93.9)	3.40±1.54		
Age	Less than 30 years	27(15.1)	3.03±1.24	.705	.497
	31 up to 40	72(40.2)	3.44±1.45		
	More than 41	80(44.7)	3.36±1.65		
Academic ability	High school graduate or less	116(64.8)	3.36±1.54	.186	.853
	College for more than	63(35.2)	3.31±1.51		
Previous occupation	Unemployed	79(44.1)	3.43±1.59	.819	.485
	Self-employed	27(15.1)	3.26±1.56		
	Company employee	28(15.6)	2.96±1.55		
	Etc.	45(25.1)	3.49±1.37		
Recuperation management service	A person of management	Less than 5 person	54(30.2)	.471	.625
		6 up to 9	73(40.8)		
		More than 10	52(29.1)		
Age of management	Age of management	Less than 69 years	15(8.4)	1.920	.050*
		More than 70 years	164(91.6)		
Total		179(100.0)	3.35±1.52		

¹⁾ One-way ANOVA and t-test, *p<.05

3. 통계분석

수집한 자료는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일반적 특성, 구강관리, 노인구강위생관리는 빈도와 백분율을 표시하였으며 일반적인 특성, 구강관리, 노인구강위생관리에 따른 구강보건지식 수준은 t-test와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강관리 및 구강보건지식과 노인구강위생관리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구강보건지식 수준

요양보호사의 일반적인 특성은 성별에서 여자가 93.9%였다. 연령은 41세 이상이 44.7%였고, 31~40세가 40.2%, 30세 이하가 15.1%의 순이었다. 학력은 고졸이하가 64.8%였으며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기 전 직업은 무직이 44.1%, 회사원이 15.6%, 자영업이 15.1%였다. 노인요양 관리업무 시 관리인원은 6~9명이 40.8%였으며 5명 이하가 30.2% 10명 이상도 29.1%였으며 연령대는 91.6%가 70세 이상의 노인이었다 <Table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지식은 성별에 따라 여자가 3.40점으로 남자의 2.45점 보다 조금 높은 경향을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05), 노인요양 관리업무 시 관리 연령대에서 69세 이하 그룹에서 4.06점으로 70세 이상(3.21점)

의 노인을 관리하는 경우보다 조금 높은 경향을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Table 1>.

2. 구강관리에 따른 구강보건지식 수준

요양보호사의 구강관리는 칫솔질 방법에서 '위아래로 닦는다'가 52.5%, '자가법'이 25.1%, '종마와 횡마법을 섞어 닦는다'가 22.3%였다. 1일 구강세정은 3회가 58.1% 가장 많았고 구강위생보조용품사용 유무에서 '사용하지 않는다'가 52.0%, 종류에서는 양치용액을 사용하는 경우가 36.5%였다. 구강보건교육 유무에서 '하지 않는다'가 55.3%였으며 교육방법으로는 요양보호사교육과정에서가 46.9%로 가장 많았으며 치과병(의)원과 대중매체가 각각 17.7%며 인터넷을 통해서가 3.5%였다. 교육내용은 칫솔질 방법이 38.9%로 가장 많았으며 틀니관리법이 30.6%, 구강질환예방법이 18.1%였다. 구강보건지식도는 칫솔질 방법에서 회전법으로 닦는 경우가 3.69점으로 '종마와 횡마법을 섞어 닦는다'가 2.90점, 자가법의 3.19점 보다 점수가 조금 높은 경향을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5)<Table 2>.

3. 노인대상 구강위생관리에 따른 구강보건지식 수준

요양보호사의 노인구강위생관리는 치과방문을 권장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가 72.6%로 응답률이 높았고 칫솔질 방법에서 '위아래로 닦아준다'가 58.1%였으며 '종마법과

Table 2. Knowledge about oral health according to oral care by geriatric care helpers

Category		N(%)	Knowledge about oral health		
			Mean±SD ¹⁾	t/F	p-value
Way to toothbrushing	Arbitrarily	45(25.1)	3.19±1.60		
	Rolling method	94(52.5)	3.69±1.52	2.029	.047*
	Vertical+horizontal method	40(22.3)	2.90±1.41		
Oral wash a day	Less than 2 times	18(10.1)	3.67±1.74		
	3 times	104(58.1)	3.28±1.47	.467	.628
	More than 4times	57(31.8)	3.35±1.56		
Using a supplementary goods about oral hygiene	Yes/No				
	Yes	86(48.0)	3.54±1.60		
	No	93(52.0)	3.29±1.74	.662	.510
Sort of goods [†]	Floss	23(20.0)			
	Tongue cleaner	12(10.4)			
	Inter-dental brush	38(33.0)			
Yes/No	Mouthrinse	42(36.5)			
	Yes	80(44.7)	3.44±1.65		
	No	99(55.3)	3.27±1.42	.716	.475
Education of oral health	Method of education [‡]				
	Dental clinic(hospital)	20(17.7)			
	Mass media	20(17.7)			
Contents of education [‡]	Curriculum of a geriatric care helper	53(46.9)			
	Internet	4(3.5)			
	Ect.	16(14.2)			
Method of tooth-brushing	Method of tooth-brushing	56(38.9)			
	Method of denture care	44(30.6)			
	Oral dices	18(12.5)			
Prevention of oral health	Prevention of oral health	26(18.1)			
	Total	179(100.0)	3.35±1.52		

[†]This is the only case of using oral hygiene supplies(duplication response).

[‡]This is the only case of experienced oral health education(duplication response).

¹⁾One-way ANOVA and t-test, *p<.05

횡마법으로 섞어 닦는다'가 24.0%였다. 매일 구강세정을 한다고 한 경우가 96.6%로 대부분 구강세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방법으로는 '물로 헹군다'가 47.5%, '가글액으로 헹군다'가 27.9%, '거즈로 닦아낸다'가 24.6%였다.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54.7%였고 종류로는 양치용액이 66.9%로 가장 많았다. 의치세정을 하는 경우가 93.3%였으며 의치세정 시 '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40.2%, '전용세정제'가 26.3%, '치약'이 20.7%의 순이었다.

노인구강위생관리에 따른 구강보건지식에서는 치과방문 권장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3.83점으로 '그렇다(3.20점) 보다 점수가 조금 높은 경향을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5). 1일 구강세정 유무에서 세정을 하지 않은 경우가 4.17점으로 점수가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5). 구강위생보조용품과 의치세정 유무에서도 하지 않은 경우가 점수가 조금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3>.

4. 구강관리 및 구강보건지식 수준과 노인위생관리와의 관련성

요양보호사의 구강관리 및 구강보건지식과 노인위생관리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요양보호 노인연령과 요양노인 이담기 수행(p<.01)이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이담기 횟수와 요양노인 치과방문 권장(p<.01), 요양노인 이담기 수행(p<.01)이 양의 상관관계가, 요양노인구강세정 유무(p<.01)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구강위생용품 유무와 요양노인 구강세정유무(p<.01), 요양노인 구강위생용품사용유무(p<.05)과 양의 상관관계였으며 구강보건교육유무와 요양노인 치과방문 권장(p<.05)은 음의 상관관계가 요양노인구강세정 유무(p<.01)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구강보건지식은 요양노인 치과방문 권장(p<.05)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4>.

총괄 및 고안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고령화의 진행속도가 빨라지고

Table 3. Knowledge about oral health according to oral hygiene care to old man by geriatric care helpers

Category	N(%)	Knowledge about oral health			
		Mean±SD ¹⁾	t/F	p	
Recommendation of visiting the dentist	Do	130(72.6)	3.20±1.34	-2.105	.037*
	Do not	49(27.4)	3.83±1.80		
Way to tooth-brushing	Arbitrarily	32(17.9)	3.53±1.64	.469	.626
	Rolling method	104(58.1)	3.35±1.48		
	Vertical+horizontal method	43(24.0)	3.18±1.57		
	Vertical+horizontal method	43(24.0)	3.18±1.57		
Oral wash a day	Yes/No	Yes	173(96.6)	-1.339	.028*
		No	6(3.4)		
Method [†]	Rinse off water	79(47.5)	3.44±1.73	2.514	.586
	Wipe oral on guaze	44(24.6)	3.16±1.22		
	Rinse off gargle	50(27.9)	3.26±1.44		
	Rinse off gargle	50(27.9)	3.26±1.44		
Frequency [‡]	Less than 2 times	32(19.0)	3.70±1.62	1.343	.264
	3 times	126(71.5)	3.23±1.53		
	More than 4times	15(9.5)	3.47±1.17		
Supplementary goods about oral hygiene	Yes/No	Yes	98(54.7)	-1.237	.205
		No	81(45.3)		
Type	Floss	5(4.1)			
	Tongue cleaners	19(15.7)			
	Inter-dental brush	16(13.2)			
	Gargle	81(66.9)			
Denture clean	Yes/No	Yes	167(93.3)	-.554	.580
		No	12(6.7)		
Type ²⁾	Water	60(40.2)			
	Toothpaste	37(20.7)			
	Kitchen cleaners	23(12.8)			
	Denture detergent	47(26.3)			
Total		179(100.0)	3.35±1.52		

[†]This is the only case of people who clean a mouth.

^{*}This is the only case of people who use a supplementary goods about oral hygiene(duplication response).

¹⁾One-way ANOVA and t-test, *p<.05

²⁾This is the only case of people who clean a denture(duplication response).

Table 4. The correlation of oral care & knowledge about oral health and oral hygiene care to old man

Category	Recommendation of visiting the dentist	Conduct of tooth-brushing	Oral wash to recuperated old man, or not	Dentures wash to recuperated old man, or not	Using oral hygiene goods to recuperated old man, or not
A person of management	.046	.094	.072	.003	.073
Age of management	-.034	.252**	.032	.056	.072
Method of toothbrushing	.159*	.116	-.077	-.083	-.201**
Frequency of toothbrushing	.206**	.449**	-.196**	-.067	-.115
Oral hygiene devices	-.060	-.025	.290**	.117	.107*
Dental health education	-.136*	.009	.185**	.105	.179
Knowledge about oral health	.150*	-.071	.095	.100	.072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p<.05, **p<.01

있는 사회적 배경에 있어 2008년도에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
 험제도로 인해 의사, 간호사를 포함하여 사회복지사, 치과위
 생사,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영양보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
 문 인력을 두어 노인수발을 하고 있다. 2012년 기준 KOSIS(국

가통계포털)에 등록된 노인요양기관별 통계¹⁰⁾를 살펴보면 부
 산지역은 873개, 경남지역은 924개로 16,829여명의 노인대상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강건강은 전신건강을 유지
 하는 제 1의 요건이며 노인의 구강위생은 여생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¹¹⁾.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¹²⁾는 65세 이상의 노인의 치주병 이환률은 85%에 이르며 구강환경의 변화로 구강점막의 통증, 불편감, 구취 등은 정신적·사회적인 활동의 제한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들의 구강관리와 노인대상 구강위생관리와 구강보건지식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소재한 일부 노인요양시설 내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전문 인력 확대보급과 더불어 노인대상 구강보건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요양보호사의 179명 중 여자가 168명(93.9%)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연령대는 30~40대가 84.9%였다. 요양보호사 1인이 관리하는 대상노인은 6~9명이 가장 많았으며 91.6%가 70세 이상의 노인으로 조사되었다. 구강보건지식은 남자(2.45점)보다 여자(3.40점)가 조금 높았으며 노인요양업무 관리연령대가 70대 이상보다(3.21점) 69세 이하에서(4.06점) 점수가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60대 노인대상 구강관리는 70대 이상의 노인보다 적용의 범위가 다양할 수 있겠으나 개인위생관리가 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극히 한정되어 있으며 구강세정, 칫솔질, 틀니관리 등⁴⁾이 있다. 대상노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구강문제¹³⁾를 해결하려는 시도들이 낮아지거나 고비용 발생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악순환이 지속되어지는 형태들이 많아진다. 69세 이하의 연령에서 지식도가 조금 높은 것은 70세 이상의 노인보다는 구강관리 업무의 필요성, 수월성, 접근성 등에 대한 요구도로 인한 요양보호사의 학습과 구강위생관리의 지속성을 유지함으로써 지식도가 조금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신 등¹⁴⁾과 양 등¹⁵⁾의 연구에서 81세 이상 노인에서 구강문제에 더 많은 불편감을 표현했다고 하였으며 고령일수록 진신질환, 구강건조증 발생률이 높고, 잔존치아수가 감소하여 의치장착필요율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구강 불편감을 해소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동반하여(거동불편 노인, 재가노인, 외상노인 등) 폭넓은 지식의 필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지속적인 반복교육과 건강문제에 대한 수월성과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요양보호사의 구강관리는 칫솔질방법에서 '위아래로(회전해서) 닦는다'가 응답률(52.5%)이 가장 높았으며 구강보건지식 점수(3.69점)도 조금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1일 구강세정은 3회가 58.1%였으나 구강위생보조용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48.0%이며 종류는 양치용액이나(36.5%), 치간 칫솔(33.0%) 순이었다. 구강보건교육 경험자는 44.7%였으며. 교육방법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에서가 46.9%로 가장 많았으며 주된 내용은 칫솔질방법(38.9%), 틀니관리법

(30.6%)이었다. 요양보호사의 구강관리방법은 직·간접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교육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자가관리나 노인 구강위생관리 행태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하였다. 결국 정¹⁶⁾의 연구에서처럼 올바른 내용과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더 나아가 다양한 교육경험이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구강건강행위, 지식, 태도 등이 일상생활습관으로 이어지고 대상자 관리까지 연결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병원이나 시설 등에서는 내부보다는 외부의 전문가에 의한 도움으로 구강위생서비스를 받는 경우도 많으나 근본적으로 내부의 전문 인력이 상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관리체계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볼 수 있겠다. 요양보호 서비스 제도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수요자에 비해 인력이 과다하게 배출(168,227명)되어 있는 실정이고 전문 관리가 필요한 인력은 배치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권 등¹⁷⁾은 노인의 83.7%가 구강보건관리나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문¹⁸⁾은 구강보건인력의 배치로 인한 정기적인 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피력하였으며 김¹⁹⁾은 요양보호사들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구강보건교육을 체계화, 지속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전담인력 배치 등에 대한 제도의 마련에 대해 언급하였다.

요양보호사의 노인대상 구강위생관리에서 치과방문권장을 하지 않는 경우(3.83점)와 1일 구강세정 유무에서 세정을 하지 않는다(4.17점)라고 응답한 경우에서 점수가 높은 경향을 보여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세정횟수는 3회(71.5%)가 가장 많았고 구강위생보조용품에서 양치용액 사용이(66.9%) 가장 많았다. 의치관리에서는 대부분 세정을 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세정종류는 '물'이 40.2%, '치약'이 20.7%였다. 김과 권²⁰⁾, 김²¹⁾의 연구에서 치과병·의원 출입이 가능한 노인에게 의치보철에 대해 기능과 구강건강상태와의 만족도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나 권 등²²⁾은 재가노인이나 입소노인은 건강 변화를 일으키는 전신질환이나 급성질환으로 인해 구강건강행위의 실천율이 떨어지고 질병의 장애요인을 해결하기가 급급하다고 하였다. 대부분 중증질환자인 경우 구강위생서비스 전달에 한계가 있으며 특히 고령일수록 양치용액을 사용하여 입안을 헹구거나 틀니를 세정 및 세척하는 등의 극히 제한된 구강위생활동만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노인대상 치과방문 권유나 구강세정에서 부정적인 견해가 지식 수준이 조금 높게 나타난 것은 상반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일반적인 경우 치과방문을 통한 정기검진, 1일 구강세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교육경험을 통한 올바른 구강관리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 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업무와 관련된 지식 수준²³⁾을 높이기 위한 교육 등 현장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교육방법을 개발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는 체제를 마련하여 서비스 수준을 개선해야 하며, 구강보건에 관한 질적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구강보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부산, 경남 일부 지역 내 소재하는 시설을 임의 표본 추출하였고 대상자의 근무환경상태와 기관의 특성에 따라 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변수에 대한 통제가 어려웠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거나 확대 해석하기에 부족할 것으로 사료된다. 후속연구에서는 제도개선을 위한 대상자 심층면접을 통한 업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요구도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교육 부재에 대한 문제를 규명할 수 있는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소재 일부 노인요양시설에 노인장기요양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2011년 11월에서 2012년 2월까지 설문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요양보호사 성별은 여자(93.9%)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연령은 41세 이상이 80명(44.7%)이었고, 31~40세가 40.2%였으며, 학력은 고졸 이하가 64.8%였으며, 노인요양 관리업무 시 관리인원은 6~9명이 40.8%였으며, 연령대는 91.6%가 70세 이상의 노인이었다. 칫솔질 방법에서 '중마와 횡마법'(2.90점)보다 자가법(3.19점)이나 '위아래로(회전해서) 닦는다'(3.69점)가 구강보건지식 점수가 조금 높은 경향을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5$).
2. 요양보호사의 노인구강위생관리는 치과방문을 권장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가 72.6%로 응답률이 높았고 매일 구강세정을 한다고 한 경우가 96.6%였다. 치과방문 권장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3.83점으로 '그렇다(3.20점)보다 구강보건지식 점수가 조금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p < .05$), 1일 구강세정 유무에서 세정을 하지 않은 경우가(4.17점) 점수가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5$).
3. 요양보호사의 구강관리 및 구강보건지식과 노인위생관리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노인연령과 노인 이닦기 수행($p < .01$)이 양의 상관관계, 이닦기 횟수와 노인 치과

방문 권장($p < .01$), 노인 이닦기 수행($p < .01$)이 양의 상관관계, 노인구강세정 유무($p < .01$)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구강위생용품 유무와 노인 구강세정유무($p < .01$), 노인 구강위생용품사용유무($p < .05$)과 양의 상관관계, 구강보건교육유무와 노인 치과방문 권장($p < .05$)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요양기관 및 시설 내 장기요양업무를 담당하는 요양보호사의 구강위생관리 업무의 정확성과 질적 관리를 위해 표준교육을 강화하고, 나아가 구강보건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지속적·체계적으로 교육과 서비스가 시행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1. Yang SB. Oral health status and treatment need of institutionalized elderly patients [Doctoral Dissertation]. Seoul: Univ. of Yonsei, 2006.
2.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Status of the elderly facilities. Seoul: Deulsaem; 2010: 38-75.
3. Park MS. Educational needs in the provision of oral care by nursing staff in long-term care facility for elderly people. J Korean Gerontol Nurs 2010; 12(1): 73-80.
4.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Nursing home staff standard textbook particulars primary care. Seoul: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0: 361-74.
5. Yang SB, Moon HS, Han DH, Lee HY. Oral health status and treatment need of institutionalized elderly patients. J Korean Acad Prosthodon 2008; 46(5): 455-69. <http://dx.doi.org/10.4047/jkap.2008.46.5.455>
6. Chung MK, Lee CY, Chang HJ. Oral status of geriatric patients, and their demand and satisfaction in prosthodontic treatment. J Korean Acad Prosthodon 2001; 39(4): 1-12.
7. Suh Guk-Hee. Vascular Dementia: Clinical feature and diagnosis. J Korean Acad Psych Mental Health Nurs 1999; 3(2): 101-13.
8. Kwon SW.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the care taker trainees perception and behavior of the oral cavity sanitation [Master's thesis]. Seoul: Univ. of Kyunghee, 2011.
9. Shin SM. A study on the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s and needs of the elderly [Master's thesis]. Cheonan: Univ. of Dankook, 2010.
10.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KOSIS). Population Projections 2012 [Internet] [cited 2014 July 4]. Available from: <http://kosis.kr/wsearch/totalSearch.jsp>.
11. Chang SH. Effect of oral health education on oral hygiene

- management of certified caregivers in elderly care facilities [Doctoral Dissertation], Iksan: Univ. of Wonkwang, 2012.
12. Bae JY. The effect of oral health on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Doctoral Dissertation], Daegu: Univ. of Yeungnam, 2009.
 13. Park IS, Kim JS, Choi MH. A study on oral health knowledge, behavior and practice among elderly people in some regions, *J Korean Acad Oral Health* 2010; 10(2): 1-12.
 14. Shin MW, Min SH, Park YN, Min HH. Complete denture satisfaction by the subjective oral health state among the elderly, *J Korean Acad Oral Health* 2010; 10(5):798-805.
 15. Yang SB, Moon HS, Han DH, Lee HY, Chung MK. Oral health status and treatment need of institutionalized elderly patients, *J Korean Acad Prosthodont* 2008; 146(5): 455-69.
 16. Jung YM, Kim SM, Lee HJ, Cho YH, Lee SG, Kim NH. Oral health care of the elderly in long-term care facilities in Korea, *J Korean Acad Oral Health* 2010; 10(4):727-34.
 17. Kwon SH, Park JR, Lee YK. A study on the elder care facility workers attitude towards senior citizens and on the perception towards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senior citizens, *J Korean Acad Oral Health* 2010; 10(6): 425-30.
 18. Moon YM. Oral health behavior factors related to caregivers of elderly care facility[Master's thesis], Seosan: Univ. of Hanseo, 2013.
 19. Kim YH. Attitude and practice related to oral care of geriatric care elders[Master's thesis], Daegu: Univ. of Kyungpook, 2011.
 20. Kim SK, Gwon MY. Analysis of satisfaction level regarding removable dentures for aged patients in dental hospitals or clinics, *J Korean Acad Oral Health* 2006; 6(2): 93-102.
 21. Kim SD. Influence of dental services on satisfaction of old prosthetic patients, *J Korean Acad Oral Health* 2007; 7(1): 15-30.
 22. Kwon SA, Ji MG, Min HH. A study on dental professionals recognition on a system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J Korean Acad Oral Health* 2009; 9(1): 1-12.
 23. Jeong MH, Kwon SS. Relationship between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elders of certified, *J Korean gerontol Nurs* 2009; 11(1):51-61.